

## 엔렌커(閻連科)의 『爲人民服務』와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비교 연구

이혁\*

###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서사 구성적 요건의 차이
3. 서사 구성 방법의 차이
4. 나오는 말

### 국문초록

최근 문학 연구의 새로운 트렌드 중 하나는 연구자의 관심 영역 확장으로 ‘소설’에 대한 관심에서 ‘영화’에 대한 관심으로의 변화 이동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소설을 영화화함으로써 소설과 영화 사이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에 기반한 연구가 현재에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본고는 근래에 개봉된 한국 영화 중, 중국에서 판매금지 조치된 엔렌커(閻連科)의 소설 『爲人民服務』을 원작으로 만든 한국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의 상호 비교 연구를 통해 소설과 영화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서로 다른 두 장르의 갈래에서 각각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주제적 의미를 고찰해 보고 중국 소설을 원작으로 한국 영화로 각색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키워드:** 엔렌커,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상호텍스트성, 블랙 코미디, 메타포

---

\* 오산대학교 강사

## 1. 들어가는 말

최근 문학 연구의 새로운 변화 중 하나는 관심을 가지는 영역의 확장, 즉 ‘소설’에 대한 관심에서 ‘서사’ narrative에 대한 관심으로의 이동변화라고 할 수 있다. 여러 문학 장르들 가운데 주도적이고 대표적인 서사 양식으로 간주 되어 온 소설이 자리에서 밀려나 “‘서사’라는 보다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장르 개념에 자리를 내주기 시작한 것”<sup>1)</sup>이다. 문학 연구에 있어서 소설의 위상이 하락하게 된 이유는 문학의 외적인 상황 변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이후 끊임없이 발전되어 온 각종 서사 매체와 그에 따른 새로운 서사 장르의 출현, 예컨대 TV, 영화, 컴퓨터, 광고, 웹툰, OTT 플랫폼 등 새로운 서사 매체와 장르는 ‘중이책’의 형태로만 만들어져 의존했던 ‘소설’에 길들여진 독자들의 시선을 빠른 속도로 빼앗아가기 시작했다. 이 같은 변화의 현상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소설은 더 이상 “‘이야기 예술’의 가장 최우선이거나 유일한 장르의 형태가 아니라는 사실”<sup>2)</sup>이다. ‘이야기 예술’로서의 문학의 독자적 장르가 소설에서 새로이 등장한 서사 매체로 이동 변화함에 따라 문학 연구자들은 더 이상 연구 대상을 소설에만 한정시킬 수 없게 되었다. 중국 문학이라는 연구 분야 역시도 문학에서 영화로 점차 그 범위가 확장함에 따라 국내의 독자들이 중국 소설보다 영화로 먼저 소비 수용하는 시대가 되었다.

예컨대 근래에 중국 소설을 원작으로 한 한국 영화는 7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 1월 14일에 개봉된 하정우 감독의 『허삼관』이 있다. 이 영화는 중국 작가 위화(余華)의 소설 『許三觀賣血記』를 바탕으로 영화로 각색되어 상영되었다. 이후 올해 2월 23일, “『색,계(色,戒)』보다 치명적이고 『화양연화(花樣年華)』보다 아름답다.”<sup>3)</sup>는 강렬한 영화 포스터 문구를 시작으로 중국

1) 김성곤, 『21세기 문예이론』, 서울, 문학사상사, 2005, 157쪽.

2) 위의 책, 159쪽.

3) 『색,계(色,戒)』는 중국 현대 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장아이링(張愛玲)이 실화를 바탕으로 국민당 간부였던 주인공을 암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을 소재로 쓴 소설로 1979년에 발표되었고, 대만의 리안(李安) 감독이 2007년 영화로 각색하였다. 영화 『

작가인 엔롄커(閻連科)의 당대소설 『爲人民服務』<sup>4)</sup> 원작을 바탕으로 한 한국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가 개봉되었다. 중국 국적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모옌(莫言)작가 이후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할 가능성이 높은 명망 있는 작가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라 국내에서 새삼 주목을 받았지만, 막상 영화가 개봉한 후로는 중국 소설을 영화화한 『허삼관』이 그러했듯이 영화에 대한 평가나 흥행면에서는 냉혹할 만큼 기대 이하였다. 필자는 왜 이러한 평가가 나오게 되었는지 원작인 『爲人民服務』와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를 비교하여 문학과 영화 사이의 상호성을 연구하고, 가능한 한 문화 연구적 시각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접근해 볼 것이다.

중국 당대 소설 『爲人民服務』는 엔롄커를 대표하는 소설로서 2005년에 광둥성의 문예지 『화칭(花城)』에 게재되었으나 마오쩌둥의 연설 제목을 빌려 사상과 위상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조치를 받았고<sup>5)</sup>, 이 작품보다 앞선 1992년에는 『황허(黃河)』에 게재된 『그해 여름 끝(夏日落)』<sup>6)</sup>과 2010년에 발표한 『사서(四書)』 역시도 여러 이유를 들어 판매금지 조치 되어 엔롄커에게는 ‘금서 작가’란 명칭이 늘 수식어처럼 따라다녔다.

그의 소설 『爲人民服務』는 문화대혁명 시대, 어느 모 부대를 배경으로 사

화양연화(花樣年華)는 영화의 제목처럼 ‘인생의 아름다운 한때’를 뜻하는 말로 청춘남녀의 이루지 못하는 사랑의 안타까움을 간직한 인생의 비밀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왕자웨이(王家衛) 감독이 만들어 2000년에 개봉해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그해 부산 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에 국내에 재개봉되어 또다시 영화인과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4) 본고의 기초자료는 김태성의 번역본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閻連科 저, 김태성 역, 웅진 지식하우스, 2008)』를 참고로 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금서로 지정된 이유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의 원저가 되는 홍콩 출판본인 閻連科, 『爲人民服務(閻連科, 香港文化藝術出版社, 2005)』를 바탕으로 삼았다.

5) 번역본의 역자 김태성은 서문에서 이 책은 출간 즉시 당국으로부터 판매금지조치와 함께 전량 회수된 일화를 밝히며, 탄압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엔롄커, 김태성 옮김,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08, 1쪽.

6) 이 책은 2012년에 『여름 해가 지다』로 국내에 출판되었다가 절판된 후 2021년 7월에 『그해 여름 끝』이란 제목으로 다시 재출판되었다.

단장 집에서 취사를 도맡고 있는 고참 공무원대장 우다왕(吳大旺)과 성 불능을 숨긴 채, 이혼 후 재혼한 사단장을 남편으로 둔 군 병원 간호사 출신의 류련(劉蓮)사이의 파격적인 러브스토리이자 좀 더 솔직하고 과감하게 언급하자면 불륜에 가까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문자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소설과 달리 등장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을 스크린을 통해 직접적으로 관객들에게 표현되는 영화에서는 과연 이 원작의 내용을 가지고 감독 장철수는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했고 어떠한 것을 말하고자 했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영화는 “스크린 위에 비치는 시각 이미지와 귀에 들리는 대사를 통한 청각 이미지로 이루어진 서사 예술”<sup>7)</sup>로, 영상과 언어가 합쳐진 기호로써 영화는 관객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영화는 원작의 주제 의식을 또한 그대로 반영했는지 문어체로 쓰인 소설 속 대사를 영화의 구어체 대사로 바꾸었을 때 변화하는 점이 있는지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하여 이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서사 구성적 요건의 차이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와 엔렌커의 소설 『爲人民服務』는 서사 구성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원작 『爲人民服務』는 문화대혁명 시기의 어느 한 군부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대혁명의 정신이 최고조에 달해 있던 그 시점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1호 원자 밖에서는 혁명과 투쟁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흐드러지게 핀 띠꽃처럼 큰 강이 되어 남북으로 굽이쳐 흐르고 있었지만, 1호 원자의 뜰 안은 전과 다름없이 무릉도원(武陵桃源)인 듯 녹수청산(綠水靑山)인 듯 몽롱한 사랑과 시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sup>8)</sup>

7) 권택영, 『영화와 소설의 욕망이론』, 서울, 민음사, 1995, 227쪽.

취사병으로서 사단장 자택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우다왕은 숙련된 요리 솜씨로 사단장의 눈에 띄게 되는데, 우다왕이 생활하는 사단장 사택의 1호 원자는 바로 개인의 사적 욕망과 국가 권력의 공적 체제가 충돌하는 장소이자 욕망의 발원지로 묘사되고 있다. 『爲人民服務』의 또 다른 공간으로는 군대를 들 수가 있다. 군대와 사단장 사택의 1호 원자를 통해 서사 공간을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외부 사회 분위기를 내부로 완전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하였다.

“사단의 수장이 거주하는 작은 원자는 모두 여섯 동이었는데 두 줄로 흩어져 있었다. 군영 북쪽에는 단독으로 붉은 벽돌로 울타리가 쳐져 있는 원자가 있어 초병과 경비병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베이징의 중난하이(中南海), 베이징 중심부에 있는 고급 관료들의 주거구역과 같은 형식이었다. 또한 이 여섯 동의 작은 건물은 철근으로 된 울타리가 쳐져 서로 분리되어 있고 집집마다 울타리를 호박넝쿨이 가득 휘감고 있어 공무원 겸 취사원 또는 취사원 겸 공무원이 나눠 사용하고 있었다. 이 건물에는 정, 부 수장 여섯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매일 회의를 했지만 한 회의실에서 국가의 대계를 상의한 후 사택으로 돌아가면 서로 거의 왕래가 없었다.”<sup>9)</sup>

원작 『爲人民服務』의 시대적 배경이 문화대혁명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정작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원작과는 다른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 영화의 첫 도입부에는 파를 들고 등장하는 무광의 모습에서 테이블 위에 있는 나무 팻말로 카메라의 시선이 옮겨지며 원작에서는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 사단장이 영화의 처음부터 등장하여 극의 긴장감을 높이는데 다음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의 시공간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사단장: 이 나무 팻말에 담긴 의미를 아나?”

8) 엔렌커, 김태성 옮김,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08, 19~20쪽.

9) 위의 책, 42쪽.

무광: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개인의 행복보다는 혁명의 대의와 사회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뜻으로 1948년 주석님께서 발표하신 인민군의 첫 번째 책무입니다. 그 옆에 새겨진 낫과 망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보리 이삭은 풍성한 수확을, 붉은 별은 사회주의가 실현된 이후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상징합니다.”<sup>10)</sup>

“무광: 보고 드립니다! 경비중대 취사분대장 신무광은 1976년 5월 1일부로 사단장 동지 사택 취사병으로 발령을 명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sup>11)</sup>

‘인민’이라는 용어와 영화는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라고 새겨진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받은 상패들을 클로즈업하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공간을 중국인지 북한인지 모를 사회주의 국가로 재설정했고”<sup>12)</sup>, 나무 팻말을 묘사하는 무광의 대사 내용은 중국의 휘장 의미를 연상케 한다. 전체 영화 속 배경에는 ‘북한’을 묘사한 영화 같지만 등장 인물들이 존경하는 소위 주석님의 초상화는 작금의 현실과는 다르다. 또한 군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중국군과 같은 식의 옷이며 사투리 등이 전혀 배어 있지 않아 다소 이질적인 배경의 모습을 보인다. 물론 도끼만행사건 등 굵직한 시대의 사건을 다르게 언급한 점 등을 비롯해 관객들이 알법할 시대적 배경이라고 추측이 되지만 영화는 이런 물음에 즉답을 피한 채 은근슬쩍 묘사로 넘어간다. 이른바 가상의 국가를 배경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묘하게 중국과 북한을 섞어놓으면서도 아닌 것과 같은 혼란을 전달한다. 이 역시 가상의 어떤 그 시대상을 그리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으며 관객에게 혼동의 재미를 전달하려는 장치적 요소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 그 공간에서 사회주의 사상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으며, 그렇게 엄격한 규율과 규칙이 존재하는 국가 속에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그들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파헤쳐 보는 장치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10) 제이앤씨미디어, 표범영화사 제작,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2022, 러닝타임 00:01:28~00:01:51.

11) 위 영화, 러닝타임 00:03:23~00:03:37.

12) 아시아타임즈, 임대근 칼럼,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20420500069>



【그림1 영화 속 나무 팻말】



【그림2 영화 속 주석 사진】

러한 측면에서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가 원작과 비교하여 단연 도드라지는 내용은 마르케스가 『백 년의 고독』에서 ‘마콘도Macondo’라는 가상의 도시 공간을 바탕으로 역사를 상징하는 곳을 탄생시켰듯이 영화는 1970년대 가상의 국가를 배경으로 새로운 장소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원작 『爲人民服務』는 중국의 어느 군부대를 배경으로 문화대혁명의 혼란스러운 시기를 다루고 있으나, 정작 “영화는 중국, 북한 혹은 남한 그 사이에서 모호한 경계를 오가며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가상의 국가를 구현한다. 이는 영화보다 원작을 먼저 접한 독자들 사이에서 영화의 배경을 둘러싸고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sup>13)</sup> 이 논쟁에 대해 장철수 감독은 “존재하지 않는 국가로 설정해야 어디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했다며 자신만의 확고한 의지를 전함과 동시에 내가 살아온 1970년대는 철저하게 대립하던 냉전 시대라 생각한다. 체제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금기와 억압이 훨씬 더 강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숨 막히는 남녀 간의 사랑을 좀 더 명확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sup>14)</sup>며 시대적인 배경을 재현해 내는 데 있어 나름대로

13) 김선우,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영화 VS 원작 비교 포인트 셋」, 『일간스포츠』, 2022.3.4. <https://v.daum.net/v/E2rOV3IB4g>

14) 김지혜, SBS 연예뉴스, ‘인민을 위해...’, 2022년 3월 2일 인터뷰 기사 중에 실린 이야기다. [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10246129](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10246129)

고민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엔렌커의 소설 『爲人民服務』은 작중 화자인 우다왕의 입장에서 류렌과의 관계를 세밀하게 설정해 나가며, 마치 두 사람은 물처럼 단단하게 흐르듯이 인간 본성의 욕망에 초점을 맞춰가며 이야기를 꺾진하게 이끌어 간다.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우다왕’을 ‘신무광’으로 ‘류렌’을 ‘류수련’으로 이름 짓고 원작에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은 사단장을 전면에 내세워 영화의 긴장감을 고취시켰다. 우선 원작의 내용을 통해 우다왕의 인물 성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영화 속 무광의 모습과 거의 일치하는 모범 병사로서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사단장님 덕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가?”  
 “묻지 말아야 할 것은 묻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며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리과장이 되물었다. “그게 전부인가?” “사단장님의 가정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바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리과장이 말을 받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일세. 모든 말을 실행에 옮기고 구호를 실천으로 옮겨야 한단 말일세.” “걱정 마십시오. 반드시 언행이 일치하고 표리가 동일하며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사상과 전문지식을 두루 갖춘 사람이 되겠습니다.”<sup>15)</sup>

“지도원: 사단장 동지 사택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무엇인가?”

무광: 묻지 말아야 할 것은 묻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않으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대장: 그게 전부인가? 사단장 동지는 총알이 다 떨어진 전쟁터에서 개머리판 맞고 나뒀구는 적군의 대갈통을 맨발로 짓이긴 분이다. 전장을 공포로 내몰아 영웅 칭호를 받으신 분이란 말이다.

무광: 사단장 동지와 사단장 동지 가정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바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도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야. 모든 말을 실행에

15) 엔렌커, 김태성 옮김,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08, 17~18쪽.

웁기고 구호를 실천으로 옮겨야 한단 말일세.

무광: 걱정 마십시오. 반드시 언행이 일치하고 표리가 동일하며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사상과 전문지식을 두루 갖춘 사람이 되겠습니다.”<sup>16)</sup>

원작에서 표면적으로는 모범 병사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으나 실체는 그리하지 않았음을 원작이나 영화에 똑같이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공산주의의 이상 실현을 그의 최우선 목표이자 미래의 청사진으로 삼았으나, ‘우다왕’이나 ‘신무광’역시도 한 인간으로서 때로는 가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과 맞닥뜨리게 된다.

“수련: 자네의 가장 큰 이상은 뭐지?

무광: 사회주의를 실현하고 사회주의 사업을 위해 죽을 때까지 분투하는 것입니다.

수련: 자네의 가장 큰 이상은 뭐지?

무광: 승진입니다. 승진해서 아내와 아이를 도시에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sup>17)</sup>

위 대사와 같이 영화에서는 사회주의의 실현이라는 자신의 대업을 달성하는 동시에 무광 역시도 ‘승진’이라는 어찌면 사회주의 실현보다 더 다급하게 이루고 싶은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인간 본연의 욕구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장면이다. 문대일은 『엔렌커의 ‘新군대소설’ 읽기』 논문에서 “엔렌커 작품 속 군인은 도시와 농촌 간의 빈부격차로 인해 젊은 빈농들은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한 출로로 군입대를 선택했고,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의 군입대 동기는 혁명의 이념적 정신에서 실용적 정신으로 바뀌었다”<sup>18)</sup>고 언급했다. 한편 우다왕과 마찬가지로 사단장의 아내 류렌 역시도 영화 속

16) 제이앤씨미디어, 표범영화사 제작,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2022, 러닝타임 00:05:03~00:05:45.

17) 제이앤씨미디어, 표범영화사 제작,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2022, 러닝타임 00:20:30~00:21:53.

18) 문대일, 이가영, 「엔렌커의 ‘新군대소설’ 읽기-『여름 해가 지다(夏日落)』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83집, 2018, 39쪽.

의 인물 수련과의 캐릭터가 사단장이라는 가장 큰 장애물에 가로막혀 혁명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욕망을 탐닉하고 인간 본연의 욕구에 충실한 성격의 소유자로 원작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영화는 원작과는 다르게 사단장의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워 스토리의 긴장감을 유도해 낸다.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어왔을지, 그 안에서 느껴온 감정들은 무엇이였을지 영화는 사단장의 인물 자체에 중점을 두고 앞뒤 스토리를 재구성했다.”<sup>19)</sup> 권력은 욕망을 억압하는 게 아니고 욕망이 있는 곳에 이미 존재한다. 사단장 자신이 강력한 인물이라는 기분이 들수록 타인인 무광과 아내 수련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통제와 금기만을 강요하는 채 때로는 망원경으로 무광의 동선을 감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광의 꿈에 나타나 욕망의 감시자로서 원작 『爲人民服務』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단장만의 강렬한 인물상을 만들어 내며 영화의 몰입도를 높였고, 그러한 점이 원작소설과 영화에서 가장 큰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영화는 사단장과 결혼한 이후, 1호 원자인 사택 밖으로는 한번도 나가 본 적 없는 수련을 위해 무광이 자전거 뒷좌석에 옥수수 자루로 위장해서 수련을 싸맨 뒤 자전거를 타고 데이트를 나서는 장면을 추가했다. 이것 역시도 원작의 소설 내용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으로, 감독이 각색한 다분히 의도적인 장치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영화에서는 소설 속 ‘마오쩌둥 선집’이 ‘주석 선집’으로 ‘누님’이란 호칭이 ‘누나’ 또는 ‘누님’으로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를 살펴보면 소설의 이야기를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건을 축소한다든지 변형한다든지 또는 삭제해 일어나게 된다. 이 과정은 반드시 해당 사건의 주제와의 밀착성, 작품 전체 구조 내에서의 비중을 고려한 뒤에 실행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설과 영화는 단지 이름만 같은 전혀 다른 별개의 서사물이 되어 버리게 된

19) 김선우,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영화 VS 원작 비교 포인트 셋」, 『일간스포츠』, 2022.3.4. <https://v.daum.net/v/E2rOV3IB4g>

다. “하나의 이야기 안에 남녀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감정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sup>20)</sup>며 원작을 최초로 마주하고 흥분했던 찰나의 감정을 전한 장철수 감독은 스스로가 느꼈던 문자 언어의 깊이를 고스란히 영화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질퍽하고 격정적인 성애의 장면만이 아닌 마치 풋풋하고 애뜻한 청춘남녀의 설렘이 느껴지는 데이트 장면이 탄생할 수 있었고, 이는 영화의 재미를 다채롭게 끌어올렸다.



【그림3 원작과 달리 추가된 데이트 장면】

### 3. 서사 구성 방법의 차이

원작 『爲人民服務』와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서사 구성 방법에서도 일종의 차이를 보인다. 엔렌커는 『爲人民服務』는 “한 편의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 중국의 특수한 시대, 특수한 배경에서 일어났던 사랑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sup>21)</sup>라고 말하면서 우다왕으로 대표되는 혁명의 모범 병사가 순식간에 인간의 본성과 사적 욕망으로 탈바꿈하는 수단으로 나무 팻말이라는 객관적 상관물<sup>22)</sup>을 제시한 것이다. 나아가 그 나무 팻말에 쓰여 있는 ‘인민을

20) 위 기사 내용의 감독 인터뷰 내용을 참고했다.

21) 엔렌커, 김태성 옮김,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08, 8쪽.

22) 현대 문학·문화 비평 용어사전에서 객관적 상관물은 『문학』 시에서 정서와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찾아낸 사물, 정황, 사건을 이르는 말로 엘리엇(Eliot, T.S.)이 처음 사용하였다. 조셉 칠더즈, 케리 헨치 엮음, 황종연 옮김, 『현대 문학·문화 비평 용어사전』, 서

위해 복무하라’는 구호는 작품의 초반에는 류렌이 우다왕을 유혹하기 위한 명분으로써 존재하였다가 나중에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점차 들만의 인간적 욕망을 정당화하는 매개체로서 작용하게 된다. 인간 본연의 욕망과 바람을 차선에 놓고 혁명의 대의와 인민을 우선시하라는 경구가 쓰인 나무 팻말은 아이러니하게도 사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정당화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어 마오쩌둥의 혁명정신과 사회주의를 통렬하게 조롱하며 비판하고 있다. “사건 전개는 구성 속에서 혁명과 도덕 정신을 다스리는 구호가 인성과 본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은 그 의미의 모순을 드러내는 동시에 사상의 모호함과 허구성을 지적한다.”<sup>23)</sup> 엔렌커는 『爲人民服務』는 혁명정신의 정수를 보여주는 구호를 의도적으로 왜곡 변형시켜, 오히려 왜곡된 현실을 예들려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원작 『爲人民服務』 속의 몇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나무 팻말의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자. 작품의 초반 『爲人民服務』의 주요 소재인 나무 팻말은 아래와 같이 묘사되어 있다.

“원래 식당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붉고 큰 글씨가 새겨진 나무 팻말이 이번에는 타일로 마감한 주방 부뚜막 위에 나타난 것이다. 글씨 왼쪽에는 다섯 개의 붉은 별이 빛을 발하고 있었고 오른쪽에는 물병이 달린 장총이 그려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풍성하게 수확한 보리이삭이 새겨져 있었다. 사단 전체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요, 전형적인 정치적 인물인 고참 공무원대장은 이 나무 팻말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에 대해 남다른 이해를 갖고 있었다. 그는 다섯 개의 별이 혁명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물병과 장총은 전투와 역사, 그리고 길고 험난한 혁명의 역정을 의미했다. 또한 보리이삭은 풍성한 수확과 아름다운 미래, 공산주의가 실현된 이후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월을 상징했다.”<sup>24)</sup>

을, 문학동네, 1993, 311쪽.

23) 한미선, 「엔렌커의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에 나타난 풍자와 사회 비판 의식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40쪽.

24) 엔렌커, 김태성 옮김,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08, 14쪽.

윗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설의 초반부에는 혁명의 대의와 혁명정신의 고조에 포커스를 두고 있으나 류렌과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적 욕망을 정당화하고 공적 체제를 무너뜨리는 도구로써 희화화되어 간다. 원작에서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말을 내뱉음으로써 지속해서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말은 실질적으로는 인민이 아닌 나 자신과 욕망을 위해 복무한다는 의미이다. 소설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것을 자아와 이기적인 욕구를 위한 복무의 뜻으로 성공적으로 전환시켰다. 하나는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고 적혀 있는 ‘나무 팻말’과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말을 우다왕과 류렌의 내통 암호로 사용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단장이 우다왕과 류렌이 밀회로 인해 임신하게 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전체 군대의 해산을 신청한 것이다.”<sup>25)</sup>

“그녀는 손에 잡히는 대로 벽 쪽에 세워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문구가 새겨진 나무 팻말을 들어다가 홍목(紅木) 식탁 위에 내려 놓았다. “샤오우(小吳), 앞으로 이 나무 팻말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있거든 내가 볼 일이 있어 찾는다는 뜻이니 위층으로 올라오도록 해.”<sup>26)</sup>

“인민을 위해 복무해야지. 어서 벗어.”  
 “어서 벗어. 인민을 위해 복무할 마음이 없는 거야?”<sup>27)</sup>

소설 『爲人民服務』에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라는 경구의 수많은 반복을

25) 임우형, 「엔렌커 소설의 역사인식과 창작방법 연구-『사서』와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90쪽.

26) 她順手把寫着爲人民服務的木牌從靠牆的邊上, 拿起來放在了紅木飯桌的這頭兒, 像讓他去院裏爲她取一樣東西樣, 就那麼隨隨便便, 有意無意地把木牌往桌子這頭的角上一擺放, 輕輕淡淡說, 小吳, 以後你 只要看到這塊木牌不在原來的地方了, 就是我找你有事兒, 你就可以到樓上去一趟。閻連科, 『爲人民服務』, 香港: 香港文化藝術出版社, 2005, 14쪽.

27) 她說, 爲人民服務, 你脫呀。她說, 脫呀, 你不是要爲人民服務嘛。閻連科, 『爲人民服務』, 香港: 香港文化藝術出版社, 2005, 100쪽.

통해 마치 한 편의 ‘블랙 코미디(Black comedy)’를 가진 희극을 감상하는 느낌이 들게 한다. “위화(余華)의 소설 『許三觀賣血記』가 무엇보다도 블랙유머(黑色幽默)적인 특징이 잘 드러난 것”<sup>28)</sup>과 같이 홍콩판 원서의 표지부터 마오쩌둥의 사상을 대변하는 중국의 유명한 정치 슬로건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소설이 진행된다면 될수록 엔렌커 작가의 창작 의도를 반영하는 핵심 키워드로 전반을 이끌고 있다. 경구의 반복은 작품의 극한 블랙 코미디를 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장치이자 날카로운 서사 구성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가 시작되면 스크린 위에 문자 언어인 “삶의 수많은 진실들은 영화라는 교량을 통해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장을 볼 수 있다. 이 문장은 원작의 첫 구절에 나오는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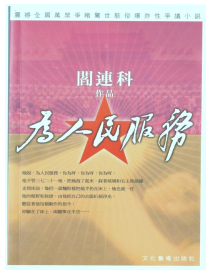
“삶의 수많은 진실들은 소설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소설의 방식으로 이를 표현하기로 하자. 어떤 진실한 삶의 모습은 허구라는 교량을 통해서만 비로소 확실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9)</sup>

인생이란 대체로 진실 위에 내려앉은 세상이라는 이름의 껍데기 위에 구성되지만 사람들은 그 속 알맹이를 궁금해하며 그것을 언어 문자로 기록하고 스케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은 그들을 예술가라 부르기에 장철수 감독은 영화를 만드는 예술인으로서 어찌면 영화의 첫 장면에 반드시 넣어 두고 싶었을 것이다. 소설은 언어 문자를 이용하여 이야기 속 시간을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고, 시간을 전진하든 거슬러 올라가든 창작자의 자유지만 영화는 카메라 렌즈 틈의 입체성에 따라 이야기가 배경 위주로 되고, 등장인물도 종횡으로 교차하는 렌즈 화면 속에 기쁨, 슬픔, 절망이 나타난다. 이 때문에 시공간을 표현하는 기능 구조에 있어서 소설과 영화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sup>30)</sup> 영화 속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나무 팻말’은 사단장에는 그저 혁명의

28) 박남용, 기영, 「위화의 『許三觀賣血記』와 영화 『허삼관』 비교 연구」, 『중국연구』 제63권, 2015, 175쪽.

29) 엔렌커, 김태성 옮김,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08, 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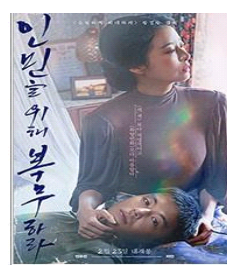
대체품으로, 무광과 수련에게는 금기의 도구가 되면서 인간의 욕망이 ‘나무 팻말’안에 쓰인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9글자의 단어에 투영되어 있다. 이를 영화 연출 기법 용어로 ‘메타포(Metaphor)’라 하는데 메타포는 사전적 정의로 ‘은유’를 뜻하는 말로 “메시지를 직접 던지지 않고 사물이나 사건을 통해 간접적으로 은유하는 스토리텔링 기법이다.”<sup>31)</sup> 영화에서 이 메타포를 응용해 적용하려면 감독만의 놀라운 창의적인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 ‘수석’이 바로 영화의 장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다. 이 영화에서 ‘수석’은 누군가에게는 그저 장식품으로 누군가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흥기가 되면서 인간의 사적 욕망을 대변하는 소재로 등장한다.



【그림4 홍콩판 원서 표지】



【그림5 한국어판 역서 표지】



【그림6 영화 포스터】

위의 그림은 왼쪽부터 홍콩에서 출간된 엔렌커의 원작소설 『爲人民服務』고, 가운데 서적은 한국어판 번역본으로 마지막 그림은 국내 개봉 당시 영화의 포스터이다. 홍콩판 서적의 표지는 큰 별이 그려져 있고, 나머지 번역본과 영화 포스터의 그림은 대동소이하다. 큰 별은 중국 공산당을 상징하는 것으로

30) 小說利用語言文字可以自由安排故事里的時間，前進也好回溯也罷都是創作者的自由，而電影由于其鏡頭空間的立體性，故事却是以空間爲主導，人物在縱橫交錯的空間畫面里開心、難過、絕望。因此，在表現時空的功能結構上，小說和電影呈現出非常大的差異性。田源，「從小說到電影：《大象席地而坐》的敘事轉變」，《聲屏世界》，2022，32쪽.

31) 다음 백과 사건의 영화 연출 기법 용어에서 내용을 참고했다.

혁명정신의 최전선에서 ‘인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영화의 제목을 원작과 달리 유사한 색을 보는 영화 『색, 계』나 『화양연화』와 같은 계열의 제목처럼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면 좋지 않았을까 한다. 제목에서 나아가 임대근 교수는 “무광과 수련이 벌이는 통정 장면은 더욱 과감하게 그려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적 체제가 어떻게 사적 욕망에 의해 무너지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극단적 클로즈업과 풀 쇼트, 카메라의 이동이 상하좌우로 다양하게 영화적 장치를 사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sup>32)</sup>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문구가 새겨진 팻말이 두 사람의 애정 사이에 다리를 벌리고 있었다.”<sup>33)</sup>

원작소설의 문장처럼 영화를 더욱더 신랄하고 과감하게 통정 장면을 연출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원작을 뛰어넘는 영화로 남지 않았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이 든다. 원작소설을 읽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역시 영상으로 표현하기 까다로운 요소 가운데 하나다. 이미지라는 것 자체가 독자 개인의 경험이 반영되는 까닭에 사람마다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점을 영화의 영상으로 옮길 때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큼 보편타당한 장치를 찾는 데 공을 들였다면 더 많은 관객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장철수 감독의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가 서사 구성에서 실패한 이유는 가상의 국가를 만들어 재현했지만 사실상 북한인 듯한 현지화 전략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다. 엔렌커의 소설은 사회주의 혁명언어가 남녀의 색정 언어로 치환되는 것으로 고별혁명의 시대와 개인의 낭만 탐구에 대해 강렬한 필치로 언급한 것이다. 중국에서 마오의 이념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도달했다는 것을 개인에게 설파하고 그 시대의 당위성에 대해 설득하기 위한 엔렌커의 소설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재현될 수 있는가

32) 아시아타임즈, 임대근 칼럼,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20420500069>

33) 엔렌커, 김태성 옮김,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08, 13쪽.

에 대한 고민이 장철수 감독의 영화에는 거의 부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다.

#### 4. 나오는 말

엔렌커 문학의 “출발점과 에너지는 인간의 존엄과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집착이라고 할 수 있다.”<sup>34)</sup> 엔렌커는 『爲人民服務』 서문에서 “이 책이 인간과 인류사회 전체의 발전에서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요소인 ‘사랑과 존엄’을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있다.”<sup>35)</sup> 인간의 존엄과 사랑에 대한 완강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의 문학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엔렌커 문학을 통해 인민의 삶 뒤에 숨어 있는 권력과 권력에 작용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았으며,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본질적인 요소인 고통과 절망을 적극적으로 글로써 표현해냈다.

엔렌커의 소설 『爲人民服務』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질 뻔했으나 수많은 중화권 독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소위 말하는 해적판을 돌려 보거나 암시장에서는 구매자들이 넘쳐날 정도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구독자 수가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판매금지 조치는 오히려 독자들의 호기심을 배가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읽어볼 만한 필독서로 자리매김하면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다. 『爲人民服務』는 욕망을 보여주는 소설이 아니라 욕망을 이용해 역사와 체제를 비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소설을 영화화한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영화로 각색하다 보니 원작과는 의도했든 또는 의도하지 않았든 적잖은 ‘틈새’가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틈새’라는 불확정적인 요소, 그리고 텍스트들 사이의 간극이 없었다면 과연 영화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었을지 의문시된다. 영화는 흥행하지 못했지만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국내의 한 OTT 플랫폼에서 ‘인

34) 엔렌커, 김태성 옮김, 『그해 여름 끝』, 파주: 넥서스, 2021, 363쪽.

35) 엔렌커, 김태성 옮김,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08, 7쪽.

민'이란 용어는 삭제되고 『복무하라』라는 제목의 9부작 드라마로 다시 대중과 날마다 만나고 있다. 우리에게 왜 '인민'은 삭제되고 '복무하라'로 제목이 바뀌었을까 하는 의문도 또 하나의 흥미 거리를 제공한다.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반성문 같은 작품이다. 그 때문에 장철수 감독은 판권을 계약한 후 영화화하는 데까지 무려 십 년이나 걸렸는데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제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일종의 반성문을 쓰면서 화두를 관객 또는 독자들에게 던진 셈이다. 그래서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서사 문학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원작에 충실하지 못한 전개 방식이나 모호한 배경 설정, 영화의 전반을 관통하는 배경 음악, 주제 의식 측면에서 뚜렷한 조명이 더해졌더라면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한중 수교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지만 최근 한국과 중국은 '문화'를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양국 간 문화콘텐츠 산업의 교역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영화 『허삼관』을 만든 하정우 감독,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를 만든 장철수 감독과 같은 전문가나 지식인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가감 없는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한중 문화교류의 새 지평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다른 중국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을 머지않아 만나길 기대해 보며 연구의 부족한 부분은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 參考文獻

- 閻連科, 『爲人民服務』, 香港: 香港文化藝術出版社, 2005.
- 옌롄커, 김태성 옮김,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08.
- 옌롄커, 김태성 옮김, 『그해 여름 끝』, 파주: 넥서스, 2021.
- 김성곤, 『21세기 문예이론』, 서울: 문학사상사, 2005.
- 권택영, 『영화와 소설의 욕망이론』, 서울: 민음사, 1995.
- 전형준, 『언어 너머의 문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3.
- 시모어 채트먼, 김경수 옮김,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서울: 민음사, 1996.
- 시모어 채트먼, 한용환, 강덕화 옮김, 『영화와 소설의 수사학』,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 조셉 칠더즈, 게리 헨치 엮음, 황종연 옮김, 『현대 문학·문화 비평 용어사전』, 서울: 문학동네, 1993.
- 고점복, 「금기와 위반의 혁명서사 옌롄커(閻連科)의 『위인민복무(爲人民服務)』론(論)」, 『중국어문논총』 제46집, 2010
- 박남용, 기영, 「위화의 『許三觀賣血記』와 영화 『허삼관』 비교 연구」, 『중국연구』 제63권, 2015.
- 문대일, 이가영, 「옌롄커의 ‘新군대소설’ 읽기-『여름 해가 지다(夏日落)』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83집, 2018
- 한미선, 「옌롄커의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에 나타난 풍자와 사회 비판 의식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 임우형, 「옌롄커 소설의 역사인식과 창작방법 연구-『사서』와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 田源, 「从小说到电影:《大象席地而坐》的叙事转变」, 『声屏世界』, 2022.
- 王德威, 「革命時代的愛與死-論閻連科的小說」, 『当代作家评论』, 2007.
- 閻連科, 「神实主义」——我的现实, 我的主义」, 『中华读书报』, 2013.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f the novel *Wei renmin fuwu* and the movie *Serve the People*

Lee, Hyuk

This study compares the full-length novel *Wei renmin fuwu*, which was written by Yan Lian Ke, with the Korean movie *Serve the People*. One of the new trends in literature research these days is the shift from interest in novels to interest in movies in expanding the field of interest of researchers. By making Chinese novels into movies, research based on the intertextuality between novels and movies is still actively underway. In this article, we will examin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novels and films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the Korean movie *Serve the People* based on the recently released Chinese novel *Wei renmin fuwu*. Power does not suppress desire, but it already exists where desire exists. Without worrying about what other people think of Mu-kwang and his wife Su-ryeon, they sometimes use telescopes to monitor Mu-kwang's movements and sometimes appear in Mu-kwang's dreams to enhance the movie's immersion.

Yan Lian Ke a prolific writer, wrote many novels despite his poor health. He drew a great response from Chinese society by describing his family, love, society and history, and even the intellectual's view of reality with his own handwriting. The world of literature in Yan Lian Ke, which he refers to as the mythological literature, will be a mirror reflecting the reality of China. I hope that Chinese literature will go to other stages of maturity in this kind of pain.

**Key words** : Yan Lian Ke, 『Wei renmin fuwu』, 『Serve the People』, Intertextuality, Black comedy, Metaphor

투 고 일 : 2022. 10. 10. / 심 사 일 : 2022. 10. 15. ~ 2022. 11. 15. / 게재확정일 : 2022. 11. 20.